

4/15/18

설교 제목: 교회의 일치(Unity)와 조화(Harmony)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5 장 1-13

- (롬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 (롬 15: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 (롬 15: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 (롬 15: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 (롬 15: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절관주** 롬 14:1
- (롬 15: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 (롬 15: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 (롬 15:10)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 (롬 15:11)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 (롬 15: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절관주** 사 11:1
- (롬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1~11 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12~16 장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장부터는 성도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 즉 성도가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문화적으로는 헬라인과 야만인,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경제적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는 자유자와 종으로 구분되는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진 공동체였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 교회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초대 교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본문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강한 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라고 권면합니다.

(롬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의 일치(Unity)와 조화(Harmony)를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Unity)와 조화(Harmony)는 예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때도 정신 못차리고 세상에 남아 아웅다웅 다들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모이는 조직이 시끄럽고 갈등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1. 교회 안에는 항상 일치와 조화를 깨뜨리는 위협 요소가 존재합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헬라인,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자유한 자, 종 모두가 다 같이 한 교회 안에 모여 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기록된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거나 다 밥상에 올려 놓고 먹었던 이방인과는 구조상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 온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는 음식으로 인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4 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와 포도주를 믿는 자가 사다 먹어도 되느냐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거리낌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해 교회 안으로 들어 온지 얼마 안되는 자들은 절대 먹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찾아 보면 우리들에게는 다름보다 더 많은 동질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다름을 강조하면 일치가 깨집니다.

그러나 동질성을 강조하면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찾으려 들지 말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일치와 조화를 이룰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롬 15: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롬 15: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조화의 근본 원천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른 각자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약한 자들을 인내와 위로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들을 인내하고 위로하는데 뜻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시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 133: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혈몬산 꼭대기는 일년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사시사철 혈몬 산으로부터 녹아내리는 눈으로 물이 마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곧 풍요를 의미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중심으로 나무도 식물도 자라게 되어 농산물이 경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란 말은 풍요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일치를 이룰 때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이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형제들이 우애있게 잘사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롬 15: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첫 열매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롬 15: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 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강하신 분이 우리 언약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본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약한자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 된 우리를 받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언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죽으면 모두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어쩔 도리가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인 우리를 받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같은 큰 은혜를 입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빛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아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롬 15: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롬 15: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말은 할례 받은 사람 즉 유대인을 섬기고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섬기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유대인을 섬기는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4. 우리가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이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롬 15: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란 단지 교회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삶은 성도들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둘째로는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대 위임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서로 다투면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다름 속에서도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복음 증거의 능력도 갖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라도 본문대로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힘쓸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선은 자신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며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교회가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내는 의견이 옳습니다.

그렇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받아줄 때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이뤄지고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